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볼보 S90 B5 시승기

‘파일럿 어시스트 II’ 탑재한 S90, 편안함의 끝판왕

공인 복합 연비 11.2km/L 훌쩍
가장 정확한 ADAS 시스템 장착
장거리 여행서 승차감 진가 발휘
통합 SKT 인포테인먼트 편의 업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볼보는 독일 3사를 강하게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9월 판매 순위에서 볼보는 1259대를 판매하며 벤츠(6245대)와 BMW(4944대)에 이어 3위에 자리했다. 월간 베스트셀링 모델 톱10에 한 대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서도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단, SUV, 크로스컨트리 등 전 차종이 고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E, F세그먼트를 아우르며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래그십 대형 세단 S90의 존재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상반기에만 1537대가 판매되며 볼보의 약진을 이끌고 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 500km 구간에서 볼보 S90 B5를 시승했다.

●장거리 여행에서 빛을 발하는 첨단 기능

S90 B5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시스템을 더한 새로운 친환경 엔진을 장착해 연비와 파워를 향상시켰다. 특히 연비가 놀랍다. 고속도로와 국도, 시내 도로를 포함한 왕복 500km 구간에서 기록한 실연비는 15.4km로 공인 복합 연비인 11.2km/L(도심 9.6km/L, 고속도로 13km/L)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렇다고 파워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최고 출력은 250마력(5700rpm), 최대토크는 35.7kgm인데 실용 가속 영역인 1800~4800rpm의 폭넓은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고, 전기모터가 출발 가속과 재시동 시 엔진 출력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0~100km/h 가속 7.2초라는 준수한 순발력을 발휘한다.

S90 B5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엔진을 새롭게 적용해 연비와 파워를 향상시켰다. 도로 흐름에 따른 정속 주행시 15km/L가 넘는 놀라운 연비를 경험할 수 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은 운전의 피로와 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원성열 기자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탑재된 볼보 S90 실내. 사진제공 | 볼보코리아

주행 모드를 다이내믹(Dynamic)에 놓으면 대형 세단임을 잊고, 펀투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뛰어나다.

도로 흐름에 따른 정속 주행시에는 S90의 진가가 드러난다. 왕복 500km의 장거리 구간에서 피로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레벨 2 수준의 반자율주행(운전자 주행을 보조해주는 수준) 기능 덕분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켠 뒤 추가로 파일럿 어시스트II를 활성화하면 설정한 속도로 앞 차와의 간격과 차선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다. 수입 및 국산차를 통틀어 이와 유사한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을 갖춘 차량들 중 볼보의 주행 보조 기능이 가장 믿음직스럽게 작동한다.

이에 더해 ‘도로 이탈 완화 기능’,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등 풍성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과 함께하는 장거리 운전은 더 없이 편안하다.

이전 모델 대비 125mm 증가한 5090mm의 전장, 120mm 늘어난 휠베이스(3060mm) 덕분에 실내 공간이 전체적으로 여유로워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S90에서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약간 올드해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었는데, 볼보는 지난 13일 S90과 V90 크로스컨트리, 신형 XC60에 국내 최초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탑재하며 단점을 완벽하게 지웠다. 내비게이션 티맵(Tmap)과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 누구(NUGU), 사용자 취향 기반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차와 통합해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음성으로 ‘아리아’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실내 및 시트 온도 조절, 목적지 설정, 음악 및 추천 플레이리스트 재생, 메시지 전송, 생활 정보 탐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sereno@donga.com

볼보 S90 B5 주요 제원

배기량(cc)	1969
마력(ps/rpm)	250, 5700
모터(kW/rpm)	10/3000
토크(kg·m/rpm)	엔진 : 35.7/1,800~4,800 모터 : 4.1/2,250
0~100km/h 가속(초)	7.2
공인연비(복합, 도심, 고속도로)(km/L)	11.2, 9.6, 13.8
가격(만 원)	6150~6850

BMW X7 M50i 프로즌 블랙 에디션

X7 M50i 프로즌 블랙 에디션 공개 BMW 한정 에디션 국내 14대 판매

BMW 코리아(대표 한상윤)가 19일 오후 10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인 ‘X7 M50i 프로즌 블랙 에디션’을 출시한다. 전 세계에 오직 250대만 한정 판매되는 BMW X7 M50i 프로즌 블랙은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구매 경쟁률을 기록한 한정 모델 ‘X7 M50i 다크 섀도우’에 이은 두 번째 무광 색상의 X7이다. 국내에는 단 14대만 BMW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

X7 M50i 프로즌 블랙은 실내외 전반에 블랙 컬러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외부는 무광의 ‘프로즌 블랙’ 컬러로 도색됐으며, 실내는 블랙 컬러의 BMW 인디비주얼 풀 레더 메리노 가죽, M 알칸타라 안트라사이트 루프 라이너 등이 적용됐다.

최고출력 530마력, 최대토크 76.5kg·m을 발휘하는 M 트윈파워 터보 4.4리터 V8 가솔린 엔진과 xDrive 시스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M 배기 시스템 등도 기본으로 탑재된다. 가격은 1억7580만 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가격)이다.

현대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자동차산업 고용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협력사들과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1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사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시작한 현대차그룹의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대기업이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협력사 채용박람회이자, 채용상담 등을 통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현대차그룹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 등을 전담하는 국내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온라인 형태로 18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등 8개 그룹사 관련 총 280여 개의 협력사가 참가한다.

공식 홈페이지(www.hmgpartnerjob.co.kr)에 접속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협력사별 채용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호타이어 ‘핀스레드 타이어’ 북미 IDEA 본상

에어리스 기반으로 디자인 혁신
안전·안락성 UP…소음은 감소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선보인 혁신적인 디자인의 미래형 타이어인 핀스레드(Fin-Sread, 내부에 공기가 없는 타이어·사진) 타이어가 2021 북미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본상인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IDEA는 IDSA(미국산업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 금호타이어가 수상했던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금호타이어는 미래 자동차에 맞는 주행 성능을 위해 핀스레드 타이어의 타이어 플랫폼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고무와 공기를 통해 차량을 지지하는 기존 개념을 탈피해, 에어리스(Air-less)를 기반으로 새로운 타이어 구조를 만들었다.

이 구조를 통해 안전성, 안락성, 소음감소 등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성능을 능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5G환경을 기반으로 로드 데이터, 교통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며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필요 성능을 구현해 사용자에게 완벽한 이동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핀스레드 타이어의 1개 트레드 유닛은 고래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고래가 엄청난 무게를 가졌지만 유연한 지느러미를 이용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이동을 한다는 점을 타이어 패턴에 적용시켰다. S자형으로 디자인한 트레드는 마찰음을 최소화한다.

환경적 관점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존의 타이어들은 마모 혹은 파손의 정도에 따라 커다란 타이어를 통째로 폐기해야 했지만, 핀스레드 타이어는 파손 혹은 마모 시 해당 트레드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인 타이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만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자율주행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의 개념은 운송수단이 아닌 이동하는 동안 향유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며 “핀스레드 타이어는 미래 EV(전기차) 및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필요한 성능을 구현해 능동적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8		
	1		7				9	
2	9			4			3	1
	4		8	9	3		5	
		9				1		
	5		1	6	2		8	
9	2			7			1	8
	8				4		7	
		7				5		

7			8		3			4
	2	3				8	9	
	8				1		3	
9		5		7				6
			6		9			
3				4		7		9
	4		1				5	
	3	2				6	4	
6			5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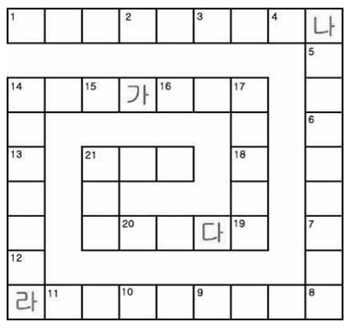
■ 스도쿠정답

7	5	9	8	2	3	1	6	4
1	2	3	4	5	6	8	9	7
4	8	6	7	9	1	5	3	2
9	1	5	3	7	8	4	2	6
2	7	4	6	1	9	3	8	5
3	6	8	2	4	5	7	1	9
8	4	7	1	6	2	9	5	3
5	3	2	9	8	7	6	4	1
6	9	1	5	3	4	2	7	8

6	3	7	2	8	1	5	4	9
5	8	1	9	3	4	2	7	6
9	2	4	6	7	5	3	1	8
7	5	3	1	6	2	9	8	4
8	6	9	4	5	7	1	2	3
1	4	2	8	9	3	6	5	7
2	9	6	5	4	8	7	3	1
3	1	8	7	2	6	4	9	5
4	7	5	3	1	9	8	6	2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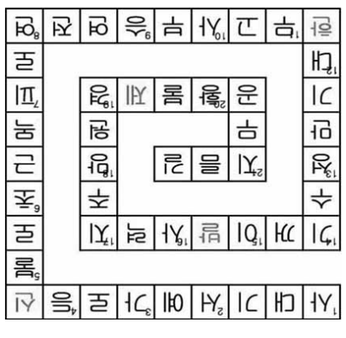


■열쇠

01.중국 명나라 때에 나온 네 권의 걸작 소설. 02.붓글씨로 일가를 이룬 사람. 03.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04.사람의 크기와 같게 만든 불상. 05.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풀. 06.풀뿌리와 나무껍질이라는 뜻. 07.결혼이나 출생 따위의 기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베푸는 연회. 08.싸울 때마다 계속하여 이김. 09.일이나 경기 따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10.사방에 걸어 놓은 네 개의 북을 치면서 춤을추는 고전 무용의 하나. 11.한없이 큼. 12.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 13.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14.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15.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남의 머리털을 깎아 다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6.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땅. 17.거미가 뽑아낸 줄. 18.멀리 있는 물체 따위를 크고 정확하게 보도록 만든 장치. 19.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20.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눌리어 두려워서 몸 둘 데가 없음. 21.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라**칸을 이어놓으면 영화 제목이 됩니다.


나가다라
나가다라
나가다라